

한정성 효과: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

전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Youngchul Jun. 2002. Definiteness Effect: Definiteness Restriction and Indefiniteness Restriction. *Language and Information* 6.2, 83-104. I argue that Definiteness Effect (DE) should include Indefiniteness Restriction (IR) as well as Definiteness Restriction (DR). DR is exhibited by existential constructions, predicate nominals,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s, and verbs with semantic features like [(CAUSE TO) COME TO) EXIST]. IR is caused by some existence presupposition of aspectual adverbs, aspectual verbs, repetitives, and topic markers. The environments for DR and IR determine the (in)definiteness of Korean bare noun phrases which otherwise can be used either way. The neutralization of DR is also induced by focus which imposes a certain amount of structure on the event quantification. Van der Sandt's (1992) Presuppositions-as-Anaphora-Theory is effectively used to account for those examples from DR, ID, and the neutralization of D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한정성 효과, 한정성 제약, 비한정성 제약, 원형 명사구, 초점, 전제, 구조화된 데이비슨식 해체(Structured Davidsonian Decomposition), 조응관계로서의 전제이론(Presuppositions-as-Anaphora-Theory)

1. 들어가기

본 논문에서는 Kamp(1981)나 Heim(1982)의 방식을 따라서 즉, 친근성 조건(familiarity condition)에 근거하여, 담화범위(discourse domain) 내에 이미 존재하는 개체를 한정적으로 그렇지 않은 개체를 비한정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정성의 표현과 관련하여 자연언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범주는 관사이다. 그런데 이 범주가 모든 자연언어에서 채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정성과 관련하여, 관사라는 범주를 결여하는 언어들에 관사를 갖춘 언어들과의 어떠한 구조적 혹은 기능적인 차이를 보이느냐는 의문이 생겨난다. 가령, 한국어는 관사체계를 결여하고 있는 전형적인 언어인데, 과연 한국어에서 한정적 표현과 비한정적 표현이 적절하게 구별되는가? 그런데 한국어 화자들 간의 대화를 관찰하면, 한정적 표현과 비한정적 표현이 분명하게 구별어진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어떤 표현이 이전의 담화에서 이미 언급되어 화자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개체를 가리키는지 혹은 새롭게 담화 속으로도

*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89,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E-mail: ycjun@hufs.ac.kr.

† 본 논문은 200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됨. 이 논문을 읽고 유용한 지적들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은 전영철(2001)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이루어졌음을 밝혀드립니다.

입되는 개체인지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화자와 청자가 반드시 공유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만약에 이러한 정보의 공유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용(accommodation) 등에 의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들여 대화를 이어 나간다. 즉, 한국어는 관사를 결여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한정적 표현과 비한정적 표현을 적절하게 구별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란 한정적인 혹은 비한정적인 표현들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한정성 제약(definiteness restriction)이란 비한정적인 표현들이 선호되는 경우로 한정적 효과의 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Reuland and ter Meulen 1987: 1). 한정성의 연구와 관련하여 한정성 제약의 현상이 큰 관심을 끌었던 까닭에 한정성 효과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 대부분 한정성 제약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볼 때 한정적인 표현들이 선호되는 비한정성 제약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언어들에서 비한정성 제약에 해당하는 현상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정성 효과의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위하여 한정성 제약뿐만 아니라 비한정성 제약에 대한 연구도 추구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의 논의를 위해 한국어 원형 명사구의 (비)한정성이 주된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2장에서 한국어 원형 명사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3장과 4장에서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을 차례로 다룰 것이며 5장에서는 담화표상이론에 기대어 의미론적 설명을 시도하려고 한다.

2. 한국어 원형명사구

한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 원형 명사구가 맥락에 따라 한정적으로도 비한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 a. 조금 전까지 개가 놀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혹시 개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세요?

b. 근처에 개 키우는 집 있어요? 지난 밤에 개가 얼마나 짖던지 잠을 다 설쳤어요.

(1a)의 밑줄 친 ‘개’는 앞 문장에서 언급된 바로 그 개를 지시하여 한정적인 반면에, (1b)의 ‘개’는 처음으로 담화에 등장하는 비한정적인 표현이다.

그런데 특정한 언어적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어 원형 명사구는 두 가지의 경우로 다 쓰일 수 있다.

(2) 개가 자고 있어.

이 문장이 대화의 첫 문장으로 발화되었을 때, ‘개’가 한정적으로도 비한정적으로도 다 가능할 것이다. 이 문장에서 한정성의 표시를 위한 어떠한 형태적, 통사적 표지가 나타나지 않지만, ‘개’의 한정성에 대한 정보는 화자와 청자간에 공유된다. 언어외적 맥락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은 음운론적인 초점에 있는 것 같다. 고음조가 ‘개’에 할당되는 경우에는 비한정적으로, ‘자고 있어’에 할당되는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초점과 한정성은 별개의 현상이지만 ‘개’에 초점이 부여되면 무표적으로 비한정적

인 해석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다.¹ 한편, 원형 명사구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3) 집에 오는 길에 개를 봤어.

이 경우에도 ‘개’는 양쪽으로 다 사용될 수 있으며, ‘개’에 고음조의 초점이 부여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무표적으로 나타나는 한정성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개’에 초점이 부여되면 비한정적인 해석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정적인 해석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위의 문장들은 원형명사구가 단계층위 술어(stage level predicates)와 어울려 특정문(particular sentences)으로 쓰이는 예문들이다. 한편, 원형명사구는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 level predicates)와 결합하여 총칭문(generic sentences)을 이룬다.

(4) a. 개는 영리하다. (는: 주제 혹은 대조 용법)

b. 개가 영리하다. (가: 배제적 제시 용법)

이와 같이 원형명사구는 개체층위 술어의 문장에서 화제표지나 주격표지와 어울려 총칭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원형명사구가 단계층위 술어와 함께 총칭문을 이룰 수도 있다.

(5) a. 개는 밤마다 짖는다.

b. 개가 밤마다 짖는다.

‘개’는 단계층위 술어 ‘짖는다’와 어울려 습관상(habitual)을 형성하여 총칭문을 이루며, 총칭적 주어로 쓰이고 있다. 총칭적 표현은 그 정의상 한정적이라고 할 때, 원형명사구는 총칭문에서 한정적으로만 쓰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원형명사구의 한정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한국어 원형명사구는 단계층위 술어와 함께 특정문을 이룰 때 한정적으로도 비한정적으로도 쓰일 수 있다.

3. 한정성 제약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보통 한정성 효과에 대한 연구는 한정성 제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 왔다. 이 절에서는 우선 한국어에 나타나는 한정성 제약의 예들로 언급되는 예들을 들어보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예들에서 한정성 제약이 상실되는 경우들, 소위 한정성 제약의 중화현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친근한 요소-한정적 표현-이 배경적 정보로, 새로운 요소-비한정적 표현-이 초점적 정보로 종종 나타나지만, 한정적인 표현에도 초점이 주어질 수 있다.

(i) [철수가]_F 영화를 사랑해요.

기본적으로 한정성과 초점은 별개의 현상이다.

3.1 한정성 제약의 예들

우선 한국어에 나타나는 한정성 제약의 예로는 존재구문(existential constructions), 술어명사구(predicate nominals), 비분리성 소유구문(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s) 등을 들 수 있다.²

- (6) a. 가방에 책이 있다.
 b. 한슬이는 학생이다.
 c. 한슬이가 머리가 길다.

(6b)의 술어명사구 ‘학생’ 대신에 ‘그 학생’을 넣어 보면 문장이 어색해진다: ‘#한슬이는 그 학생이다’. 마찬가지로 (6c)의 비분리성 소유구문의 소위 제2주어인 ‘머리’대신에 ‘그 머리’를 넣었을 때에도 어색한 문장을 얻게 된다: ‘#한슬이가 그 머리가 길다’. 한편 이와는 달리 (6a)의 존재구문의 경우에는 ‘책’ 대신 ‘그 책’을 쓰더라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는: ‘가방에 그 책이 있어’. 그러나 이 문장은 전형적인 존재문의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³ 따라서 이 세 경우들은 모두 한정성 제약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다른 종류의 한정성 제약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가능하다.⁴

- (7) a. {아이가/한 아이가/#그 아이가} 태어났어.
 b. {노조가/한 노조가/#그 노조가} 결성되었어.
 c. 한슬이는 {회사를/한 회사를/#그 회사를} 설립했다.
 d. 한슬이는 {집을/한 집을/#그 집을} 지었다.

(7a/b)에서 주어가 중립 기술의 ‘가’와 함께 나타날 때 원형명사구와 비한정적인 표현은 허용되지만 한정적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7c/d)에서는 목적어가 원형명사구나 비한정적인 표현일 때는 자연스러우나, 한정적일 때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예문들에 사용된 원형명사구들은 모두 비한정적인 해석만 가능할 뿐이다. 그런데 위와는 다른 격표지가 사용되면 해당 문장의 용인성(acceptability)에 차이가 나타난다. 가령, (7a/b)에 중립 기술의 표지 ‘가’ 대신에 배제적 제시의 표지 ‘가’가 사용되면 한정적인 주어(‘그 아이’)도 허용된다. 그리고 (7c/d)에서 주어가 대조 표지와 어울리면(‘한슬이는’), 한정적인 목적어(‘그 회사’)도 허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절에서 한정성 제약의 중화

2. 비분리성 소유구문이 한정성 제약을 보인다는 관찰은 문귀선(2000)에서 언급되었다.
 3. 이 문장은 예문 (12)의 논의와도 관계가 있다. Abbott(1993)은 전형적인 존재문(ordinary existentials)과 맥락화된 존재문(contextualized existentials)을 구분하여, 전자는 비한정적 논항을 포함하고 이 논항의 존재를 단언하는 반면에 후자는 한정적 논항을 포함하여 그 밖의 것을 단언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방에 그 책이 있어’는 한정적 논항을 취하는 맥락화된 존재문으로 이 논항의 존재 이외의 것을 단언한다. 실제로 이 문장은 ‘그 책’의 존재를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담화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어떤 책의 소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전영철(2000)을 참조할 수 있다.
 4.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가’를 중립 기술의 ‘이/가’와 배제적 제시의 ‘이/가’로 나누어 사용하고, 회제 표지 ‘은/는’을 주격적의 ‘은/는’과 대조의 ‘은/는’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겠다.

를 논할 때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7)과 같은 환경에서 한정적인 표현들의 사용이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정성 제약의 현상은 술어의 의미적인 특성에서 기인되는 것 같다. 위 술어들-‘태어났어’, ‘결성되었어’, ‘설립했다’, ‘지었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미적 특성은 이전의 담화 범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체를 처음으로 담화 내에 소개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공통적인 의미 특성에 의해 한정적인 표현이 제약을 받는 것 같다. 이러한 관찰은 형거리에 대해 Szabolcsi(1986)나 Kiss(1995)에서 제시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EXIST], [COME TO EXIST(IN A PARTICULAR FASHION)], [CAUSE TO COME TO EXIST(IN A PARTICULAR FASHION)] 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비한정적 표현들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위 예문들에 나타나는 ‘태어나다’, ‘결성되다’, ‘설립하다’, ‘짓다’ 및 ‘발생하다’, ‘돌발하다’, ‘만들다’, ‘성립하다’ 등을 들 수 있겠다. (7a/b)는 자동사 유형으로 비한정적인 주어를 요구하며, (7c/d)는 타동사가 쓰이고 있고 비한정적인 목적어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성 제약을 받아들인다면 비한정적인 주어를 요구하는 한정성 제약 동사들은 주제격 표지 ‘은/는’이 주어 뒤에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제격 표지는 항상 한정적인 표현과 어울리기 때문이다.

- (8) a. #{아이/그 아이}는 태어났어.
 b. #{노조/그 노조}는 결성되었어.
 c. #{쿠데타/그 쿠데타}는 발생했어.
 d. #{전쟁/그 전쟁}은 발발했어.

(7a/b)의 예문에서는 원형명사구가 한정성 제약 동사들의 논항으로 사용될 수 있었으나, (8)의 예문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제격 표지 ‘은/는’은 한정적인 표현만을 취하므로 한정성에 대한 형태론적 표지가 결여되어 있는 원형명사구와 어울리면 원형명사구를 한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정성 제약 동사들과는 함께 사용되지 못한다.⁵

이와 같은 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이유는 위의 문장들의 기본적인 기능이 ‘존재의 단언’이라는 데 있다. 위 문장들의 공통점은 이전의 담화 범위 내에는 들어있지 않던 개체들이 새로이 담화 속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모두 단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담화 속에 이미 존재하는 개체를 나타내는 표현, 즉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Barwise & Cooper(1981)에서 언급되듯이, 그와 같은 문장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는 일종의 항진명제(tautolog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부정은 모순명제(contradiction)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

5. 한편 ‘#한 아이는 태어났어’도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비한정적인 ‘한 아이’가 한정성 제약 동사의 논항이 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비한정적 표지가 뚜렷한 표현은 주제격 표지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3.2 한정성 제약의 중화

이상의 한정성 제약을 유발하는 동사들이 다음의 예문에서와 같이 한정적인 표현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 (9) a. 그 아이가 [어제]_F 태어났어.
 b. 그 노조가 [작년에]_F 결성되었어.
 c. 한슬이는 [작년에]_F 그 회사를 설립했다.
 d. 한슬이는 [작년에]_F 그 집을 지었다.

이 문장들이 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던 (7)의 예문들과 다른 점은 초점이 부여된 부사어가 첨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화 현상은 헝가리어에 대해 Szabolcsi(1986)와 Kiss(1995)에 의해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만약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게 되면 한정성 제약이 사라진다고 주장하였다.⁶ 이러한 주장은 예문 (9)에서 한국어에도 그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정성 제약 동사가 자동사일 때(9a/b)나 타동사일 때(9c/d)나 모두 한정성 제약이 중화되어서 한정적 표현들이 허용된다. 다음의 예들에서도 한정성 제약의 중화 현상을 볼 수 있다.

- (10) a. {아이/그 아이}는 [어제]_F 태어났어.
 b. {노조/그 노조}는 [어제]_F 결성되었어.
 c. {쿠데타/그 쿠데타}는 [어제]_F 발생했어.
 d. {전쟁/그 전쟁}은 [어제]_F 발발했어.

이 예문들은 (8)과 대비되는 것인데, (8)에 비해 초점을 받는 부사어 ‘어제’가 첨가되었다. 주제격 표지를 동반하는 한정적 주어가 허용되지 않는 (8)과는 달리, (9)에서는 이러한 주어가 허용이 된다. 이것은 (9)와 마찬가지로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게 되어 한정성 제약이 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정성 제약 동사가 타동사일 때 다음과 같은 중화현상이 관찰된다.

- (11) a. 한슬이가 그 회사를 설립했다.
 b. 한슬이는 그 회사를 설립했다.
 c. 한슬이가 그 집을 지었다.
 d. 한슬이는 그 집을 지었다.

6. 그러나 이들은 존재문과 관련된 중화현상에는 의견을 달리한다. Szabolcsi(1986)는 헝가리어에서 존재문의 경우에는 한정성 제약의 중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Kiss(1995)는 반대의 입장이다. 예문 (12)의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어에서는 존재문에서도 한정성 제약의 중화가 발생하므로 이는 Kiss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이 예문들은 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7c/d)와 대비되는 것들이다. (9c/d)와는 달리 초점이 부여된 ‘어제’와 같은 부가적인 요소를 덧붙이는 대신에 주어와 결합하는 표지를 달리함으로써 한정성 제약의 중화현상이 나타나는 예들이다. 즉, 주어가 배제적 제시의 ‘가’나 대조의 ‘는’을 취함으로써 그 목적어에 나타나는 한정성 제약이 중화되고 있다. 배제적 제시의 ‘가’나 대조의 ‘는’은 서로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초점을 동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바로 이 특성으로 인하여 중화가 발생한다. 이 경우에도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게 되어 한정성 제약이 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게 되면 한정성 제약이 중화된다는 Szabolczi(1986)와 Kiss(1995)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예문들을 통하여 우리는 한정성 제약 동사가 타동사일 때 한정성 제약과 관련되는 논항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존재문에 나타나는 한정성 제약의 중화 현상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듯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12) [가방에]_F 책이 있어요.

이 문장은 전형적인 존재문과 동일한 통사적 구성. 처소구 원형 명사구+주격조사 존재동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존재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처소구 ‘가방에’에 초점이 부여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 문장은 ‘책 못 봤니?’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때 (12)는 존재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문은 새로운 개체를 담화 속으로 새롭게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데, (12)의 ‘책’은 이미 담화 속에 도입되어 있는 개체를 지시한다. 즉, (12)에서 ‘책’은 한정적으로 해석되어 한정성 제약이 중화되며, 그 원인은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정성 제약이 중화되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관찰된다.

(13) a. 그 아이가 태어났어.

b. 그 노조가 결성되었어.

이 예문들은 한정성 제약이 발생하는 (7a/b)과 대비되는 것인데, (7a/b)에 쓰이던 중립 기술의 ‘가’가 배제적 제시의 ‘가’에 의해 대치된 것이다. 그 결과 (13a/b)는 상당히 자연스러워진다. 가령, 이 문장들은 ‘누가 태어났니?’나 ‘뭐가 결성되었니?’ 정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한정성 제약의 중화 현상들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이 초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게 되면 한정성 제약이 사라진다는 Szabolczi(1986)와 Kiss(1995)의 주장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13)과 같은 한정성 제약의 중화 현상을 포함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한정성 제약을 유발하는 요소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으면 한정성 제약이 중화된다고 수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13)을 포함하여 이제껏 살펴 본 한정성 제약의 중화의 예들이 모두 포함되어질 것이다. 이 수정안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지지를 받는다.

(14) a. 한슬이는 [그 회사를]_F 설립했어.

b. 한슬이는 [그 집을]_F 지었어.

(7c/d)에서 보았듯이 이 예문들은 목적어에 초점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정성 제약이 나타나서 허용이 되지 않는 문장이지만 위와 같이 목적어에 초점이 주어지게 되면 그 용인성이 상당히 개선된다. Szabolczi(1986)와 Kiss(1995)의 주장과는 달리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에 해당하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초점을 받는 경우에도 한정성 제약의 중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 보다는 본고의 수정안-한정성 제약을 유발하는 요소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으면 한정성 제약이 중화된다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초점이 한정성 제약의 중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초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전달되는 정보의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15) a. [한슬이가]_F 축구를 하고 있어요.

b. 한슬이가 [축구를]_F 하고 있어요.

c. 한슬이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이 문장들은 동일한 논리적 함의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의 구조는 각각 달라서, (15a)는 누군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한슬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반면에 (15b)는 한슬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축구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달리 말해 위 두 문장은 오직 초점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단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초점이 부여되지 않는 (15c)는 현재 화자가 보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전달하므로, 한슬이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다는 전체 내용을 단언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문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존재의 단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장들에 초점이 부여되면 이 문장들의 정보구조는 변화를 입게 된다. 한 예를 다시 들어 보자.

(9) a. 그 아이가 [어제]_F 태어났어.

시간 부사어 '어제'에 초점이 놓인 (9a)는 더 이상 그 아이의 존재를 단언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지 않는다. (9a)가 단언하는 것은 그 아이가 담화의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은 바로 어제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한정적이어서 이미 담화 범위 내에 존재하는 그 아이의 존재를 단언하는 비정보적인 혹은 항진명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면하게 되어 적절한 발화로 쓰이게 된다. 이와 같이 초점이 정보구조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초점 이론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다. 문장의 어떤 성분들에 초점이 주어지면 초점이 주어지지 않는 부분은 일종의 전제로서 작용하고 초점이 주어지는 부분은 단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 이제 한정성 제약의 중화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현상에 관여하는 초점의 역할을 초점 이론의 틀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이 작업을 위해 본고에서는 Herburger(2000)에서 제시된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Structured Davidsonian Decomposition)'의 방식을 따르도록 할 것

이다. 이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방식의 핵심은 첫째, 모든 문장은 상태적(stative)이건 사건적(eventive)이건 간에 모두 사건(event)에 대한 기술로 간주하여 모든 문장을 사건에 대해 양화된 구조로 파악하고 둘째, 초점에 의해 이 양화 구조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 (16) 사건 양화사 Q의 영향권 내에 있는 비초점적 요소들은 모두 Q를 제한하게 된다

설명의 편의상 우선 예를 살펴보자. 다음의 (17a/b)의 문장들에 대하여 (18a/b)와 같이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를 이용한 표상이 주어진다.

- (17) a. [Jane]_F wrote a poem.

- b. Jane wrote [a poem]_F.

- (18) a. $[\exists e: C(e) \ \& \ \text{Write}(e) \ \& \ \text{Past}(e) \ \& \ [a \ x: \text{Poem}(x)] \ \text{Theme}(e,x)]$
Agent(e,jane) & Write(e) & Past(e) & [a x: Poem(x)] Theme(e,x)

- b. $[\exists e: C(e) \ \& \ \text{Agent}(e,jane) \ \& \ \text{Write}(e) \ \& \ \text{Past}(e)]$
[a x: Poem(x)] Theme(e,x) & Agent(e,jane) & Write(e) & Past(e)

모든 문장은 통사적으로 실현된 양화 부사가 있다고 가정되며, 위 예문과 같이 특정한 양화부사가 통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암묵적인 존재적 양화(\exists)가 부여된다. 또한 모든 양화사는 맥락에 의해 값이 부여되는 맥락 술어 C에 의해 제한된다고 가정하여, 모든 양화 구조는 제한자(restrictor) 내에 'C(e)'를 포함하게 된다. 먼저 (17a)를 살펴보자. 이 문장은 주어 'Jane'에 초점이 주어졌으므로 이 문장의 비초점적 부분은 'wrote a poem'이다. 따라서 (16)의 가정에 의해 이 비초점적 부분이 (18a)의 제한자에 'Write(e) & Past(e) & [a x: Poem(x)] Theme(e,x)'의 형식으로 표상된다. 초점을 받는 'Jane'은 'Agent(e,jane)'의 형식으로 작용역(nuclear scope)에 표상된다. 그리고 형식을 맞추기 위하여 제한자에 표상된 비초점적 부분인 'Write(e) & Past(e) & [a x: Poem(x)] Theme(e,x)'이 작용역으로 복사된다. 한편 이 문장은 양화부사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존재적 양화(\exists)가 부여되고, 맥락에 대한 제한을 위해 'C(e)'가 제한자에 표상된다. (17b)는 (17a)와 초점이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다르다. (16)에 제시된 초점의 영향에 의해 (17b)의 비초점적인 부분인 'Jane wrote'는 (18b)의 제한자에 'Agent(e,jane) & Write(e) & Past(e)'로 표상되고, 초점을 받는 'a poem'은 작용역에 '[a x: Poem(x)] Theme(e,x)'로 표상된다. 그리고 비초점적인 부분은 역시 작용역에 복사되며, (18a)에서와 같은 나머지 과정을 거쳐 (18b)와 같은 표상을 얻게 된다. 이런 표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17a)의 해석을 '시를 쓰는 어떤 과거 사건이 Jane을 그것의 행위자로 가진다'와 같이, 그리고 (17b)의 해석을 'Jane을 행위자로 가지는 과거의 어떤 쓰는 행위가 시를 그것의 대상(theme)으로 가진다' 정도로 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얻어지는 '[Q A] B'와 같은 삼부구조를 가진 발화에 대하여 제한자 A는 이 발화의 논제(aboutness)를, 핵절 B는 관련된 단언(assertion)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따르면, (17a)는 시를 쓰는 사건에 대한 것인 반면에 (17b)는

Jane이 쓰는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17a)는 Jane이 단언의 대상인 반면에 (17b)는 시가 단언의 대상으로 파악된다.

이에 근거하여 한정성 제약의 중화 현상을 보이는 (9a)를 다시 살펴보자.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에 의해 (9a)에는 (19)와 같은 표상이 주어진다.

(9) a. 그 아이가 [어제]_F 태어났어.

(19) $[\exists e: C(e) \ \& \ \underline{[the \ x: \ baby(x)] \ Theme(e,x) \ \& \ Born(e) \ \& \ Past(e)}]$
 $\underline{Yesterday(e)} \ \& \ [the \ x: \ baby(x)] \ Theme(e,x) \ \& \ Born(e) \ \& \ Past(e)$

(16)에 제시된 초점의 영향에 의해 비초점 부분인 ‘그 아이가 태어났어’는 ‘[the x: baby(x)] Theme(e,x) & Born(e) & Past(e)’와 같이 제한자에 표상되고 초점을 받는 ‘어제’는 작용역에 ‘Yesterday(e)’로 표상된다. 제한자로의 표상은 논제를, 작용역으로의 표상은 단언을 뜻하므로 제한자의 ‘Born(e)’은 논제에 해당할 뿐이지 단언과는 관련이 없다. 작용역에 나타나는 것은 ‘Yesterday(e)’뿐이므로 단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어제’가 전부이다. 이와 같이 [COME TO EXIST]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Born(e)’이 단언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문장은 존재의 단언을 수행하지 않는다. 한정성 제약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한 존재의 단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약이므로 존재의 단언을 수행하지 않는 (9a)는 한정성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9a)처럼 한정적인 표현이 ‘Born(e)’의 논항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아가 비한정적인 표현이 ‘Born(e)’의 논항이 되어도 무방하다: ‘한 아이가 [어제]_F 태어났어’. (9a)는 초점의 영향으로 양화 구조가 영향을 입어서 존재의 단언과 무관한 정보 구조를 갖게 되어 한정성 제약과 관계가 없어지므로 해당 요소의 한정성 여부는 문장의 용인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의 경우는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아 한정성 제약이 중화되는 예이다. 우리는 앞에서 (13)-(14)의 예들을 통하여 한정성 제약을 받는 논항이 초점을 받는 경우에도 한정성 제약이 중화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는데, 이것도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a)는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에 의해 (20)과 같은 표상이 주어진다.

(13) a. 그 아이가 태어났어.

(20) $[\exists e: C(e) \ \& \ \underline{Born(e) \ \& \ Past(e)}] \ \underline{[the \ x: \ baby(x)] \ Theme(e,x) \ \& \ Born(e) \ \& \ Past(e)}$

비초점 부분인 ‘태어났어’는 ‘Born(e) & Past(e)’와 같이 제한자에 표상되고 초점 부분인 ‘그 아이’는 작용역에 ‘[the x: baby(x)] Theme(e,x)’로 표상된다. 이 경우에도 ‘Born(e)’가 논제의 대상이지 단언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 문장은 존재를 단언하는 기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한정성 제약을 벗어나게 되어 한정적인 표현이 허용되는 것이다.

한정성 제약을 보이는 이 두 가지 경우들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의 표상인 (19)와 (20)을 들여다보면 그 공통점은 ‘Born(e)’가 제한자에 할당된다는 것이다. 즉 한정성 제약 동사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으므로 한정성

제약동사는 제한자로 표상되어 단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문장들은 존재의 단언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한정적 표현들이 허용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제시하는 한정성 제약의 중화 조건-한정성 제약을 유발하는 요소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으면 한정성 제약이 중화된다-이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의 방식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3절에서 우리는 한국어에 나타나는 한정성 제약의 예들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한정성 제약을 유발하는 요소 이외의 구성성분이 초점을 받으면 이러한 한정성 제약의 현상은 중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⁷ 그리고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의 방식에 기대어 한정성 제약의 중화에 나타나는 초점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다음절에서는 비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한국어의 예들을 살펴보자.

4. 비한정성 제약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정성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한정성 제약만을 다루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Kiss(1995)는 한정성 효과의 논의에 한정성 제약뿐만 아니라 비한정성 제약을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⁸ 그녀는 이 논문에서 헝거리어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는 비한정성 제약의 예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타 언어들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포함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비한정성 제약의 예들을 논의함으로써 비한정성 제약이 한정성 효과의 한 축이 됨을 보이고자 한다.

4.1 예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 원형명사구는 한정적으로도 비한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21) a. 학생이 자고 있어.

b. 아이가 울고 있어.

그러나 다음의 문장에서 한정적으로만 사용된다.

7. 초점에 의한 한정성 제약의 중화가 한정성 제약의 모든 경우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존재의 단언과 관련이 있는 한정성 제약 동사 구문이나 존재문에서는 이러한 초점에 의한 중화가 나타나지만 술어명사구와 비분리성 소유구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8.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녀의 작업은 한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특정성(specificity)에 관한 것이다. 그녀는 Enc(1991)을 좇아서, 어떤 명사구의 지시물(referent)가 담화 범위에 이미 존재하는 지시물들의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그 명사구는 [+특정성]의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도 동일한 입장에서 특정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한정적인 명사구는 저절로 [+특정성]의 자질을 갖게 되고, 비한정적인 명사구들 중에서 이전에 언급된 개체들의 부분을 나타내는 것들도 [+특정성]으로 처리된다. 그렇지만 특정성에 대한 그녀의 논의는 대부분 본고와 같은 한정성 효과의 논의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그녀는 비특정적 표현만이 허용되는 경우를 비특정성 효과(Non-Specificity Effect)라고 하고, 특정적 표현들만이 나타나는 경우를 특정성 효과(Specificity Effect)라고 한다. 이들은 각각 본고의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에 해당하는 용어들이다. 한정성 효과는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보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한정성 제약/비한정성 제약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었다.

(22) a. 학생이 아직 자고 있어.

b. 아이가 아직 울고 있어.

이렇듯 ‘아직’이라는 상부사(aspectual adverb)가 삽입되자 원형명사구가 한정적인 해석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원형명사구의 한정적인 해석만이 허용되는 현상을 가리켜 비한정성 제약(indefiniteness restriction)이라고 하자. 이러한 비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환경에서는 형태적으로 한정적인 표현만이 허용될 뿐 형태적으로 비한정적인 표현은 허용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23) a. 그 학생이 아직 자고 있어요.

b. (?)한 학생이 아직 자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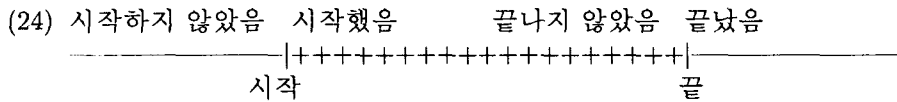
c. 그 아이가 아직 울고 있어요.

d. (?)한 아이가 아직 울고 있어요.

(23a/c)와 같이 형태적으로 한정적인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예측과 일치하지만 (23b/d)는 얼마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23b)에서 ‘한 학생’이 진정한 의미에서 비한정적으로 쓰인다면 자연스럽게 못하다. 즉, 이전의 담화 범위에 전혀 도입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처음 담화 속으로 도입되는 개체를 지시한다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 학생’이 지시하는 개체가 이전의 담화 범위에 도입된 어떤 학생들의 집합에 속한다면 (23b)은 용인된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자면, 전자는 비특정적인 비한정 표현(nonspecific indefinites)의 경우이고 후자는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specific indefinites)의 경우이다. 엄밀하게 말해서 비한정적인 표현이 허용되지 않으리라는 예측은 빗나간다. 왜냐하면 후자와 같이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아직’이 비한정성 제약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비특정적인 혹은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이 있으나 비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이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보다 비한정성의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이 지시하는 개체가 속한 집합은 이전의 담화 범위에 이미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은 간접적으로 한정성을 띤다고도 할 수 있으나 비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이 지시하는 개체는 그야말로 새롭게 담화 범위에 도입되는 것이므로 전혀 한정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한정성의 정도가 큰 표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비한정성에 대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21)에서와 같이 한정적 혹은 비한정적 해석을 모두 받던 원형명사구가 (22)에서 ‘아직’의 영향으로 비한정적 해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비한정성 제약에 대한 강한 증거가 된다. (22)에서는 원형명사구들이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으로도 쓰이지 않는다. 이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비한정성 제약을 견지하고자 한다.⁹

9. 한 대안으로 Kiss(1995)의 주장을 따라 비특정성에 대한 제약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의 전체적인 틀을 위하여 비한정성 제약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아직’에 의해 비한정성 제약이 야기되는 것은 ‘아직’의 상적 특성이서 비롯한다. 비한정성 제약의 설명을 위해서는 상부사의 상적인 특성을 먼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 상부사의 상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상태에 대한 극성의 전이에서 비롯되는 상태의 연속성에 기대어 살펴볼 수 있다.¹⁰



극성 전이의 특성에 따라 ‘시작하지 않았음’, ‘시작했음’, ‘끝나지 않았음’, ‘끝났음’의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네 부류의 상부사가 나타나는 예를 살펴보자.

- (25) a. 한슬이는 아직 안 자. ‘시작하지 않았음’ 부류
- b. 한슬이는 벌써 자. ‘시작했음’ 부류
- c. 한슬이는 아직 자. ‘끝나지 않았음’ 부류
- d. 한슬이는 더 이상 안 자. ‘끝났음’ 부류

예문들은 한슬이가 지금 자는지 안 자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순 기술이외에 부가적인 정보도 전달한다. (25a)는 한슬이가 지금 안 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안 자고 있었다는 정보를, (25b)는 한슬이가 지금 자고 있으나 얼마 전에 자기 시작했다는 것을 즉, 이전에는 안 자고 있었다는 정보를, (25c)는 한슬이가 지금 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자고 있었다는 정보를, (25d)는 한슬이가 지금 자고 있지 않지만 이전에는 자고 있었다는 정보를 전달한다. 긍정적인 정보를 극성 1, 부정적인 정보를 극성 0으로 나타내고, 이전의 상태를 첫 번째 극성으로, 지금의 상태를 두 번째 극성으로 표기하면 위의 네 부류의 상부사의 극성 전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6) a. 아직 안 0/0
- b. 벌써 0/1
- c. 아직 1/1
- d. 더 이상 안 1/0

‘아직 안’과 ‘벌써’는 첫 번째 극성이 0으로 같아서 (25a)와 (25b)는 한슬이가 이전에는 안 자고 있었다는 부가적인 정보를 공유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25a)의 부정은 (25b)이므로 이 부가적인 정보는 전제로 처리할 수 있다. ‘아직’과 ‘더 이상 안’도 첫 번째 극성이 1로 동일하여 (25c)와 (25d)는 한슬이가 이전에 자고 있었다는 부가적 정보를 공유하며, (25c)의 부정이 (25d)이므로 이 부가적 정보도 전제로 처리될 수 있다.

상부사들이 이상과 같은 전제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비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예문을 다시 살펴보자.

- (22) a. 학생이 아직 자고 있어.

10. (24)의 도식은 ter Meulen & Smessaert (1994)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도식에 근거한 한국어 상부사의 상적 특성에 대해서는 전영철(1998)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아직’의 영향으로 원형명사구 ‘학생’이 한정적인 해석만 갖게 된다. 이제 이러한 비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것은 상부사 ‘아직’의 극성 전이가 1/1이어서 학생이 발화 이전에 자고 있었다는 전제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극성이 1이어서 야기되는 이 전제로 말미암아 ‘학생’이 지시하는 개체가 문장 (22a)의 발화 이전에 담화 범위 내에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 되므로 ‘학생’은 한정적인 해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극성 전이가 1/1인 다른 상부사나 극성 전이가 1/0인 상부사도 ‘아직’과 동일한 전제를 가지므로 이 상부사들에 의해서도 비한정성 제약의 현상이 유발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7) a. 학생이 여태 자고 있어.

b. 학생이 더 이상 안 자.

(27a)의 ‘여태’는 ‘아직’과 같은 부류에 속해 극성 전이 1/1을 가지며, (27b)의 ‘더 이상 안’은 극성 전이 1/0의 부류에 해당한다. 이 예문들에서 ‘학생’은 모두 한정적인 해석만이 가능하여 예측대로 비한정성 제약 현상이 나타난다.

상부사와 동일한 현상이 상동사(aspectual verbs)에서도 관찰된다. 상동사도 상부사와 마찬가지로 그 상적 속성에 의해 네 부류의 극성 전이를 보여준다.

(28) a. 안 시작하다 0/0

b. 시작하다 0/1

c. 계속하다 1/1

d. 멈추다 1/0

극성 전이 1/1과 1/0에 해당하는 다음의 예를 보자.

(29) a. 친구가 고시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b. 아이가 울음을 멈추었어요.

‘친구’와 ‘아이’가 모두 한정적으로만 해석되어서 두 극성 전이의 경우에 모두 비한정성 제약 현상이 나타난다.

반복의 상적 속성을 나타내는 부사 ‘다시’와 ‘또’가 나타나는 문장에서도 비한정성 제약 현상이 발생한다.

(30) a. 학생이 다시 자고 있어요.

b. 아이가 다시 울고 있어요.

c. 학생이 또 자요.

d. 아이가 또 울어요.

극성 전이 1/1이나 1/0의 상부사나 상동사와 마찬가지로 ‘다시’와 ‘또’도 ‘발화 이전에 어떤 학생이 자고 있었다’ 또는 ‘발화 이전에 어떤 아이가 울고 있었다’

는 전제를 야기하므로 ‘학생’과 ‘아이’는 한정적인 해석만을 받게되어 비한정성 제약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¹¹

이와 같이 상부사, 상동사, 반복을 나타내는 부사들의 상적 속성에 의해 야기되는 어휘적 전제-해당 사건이 발화시점 이전에도 존재했다-로 인하여 비한정성 제약이 발생하는 예들을 살펴보았다. 한편 이외에도 원형명사구가 화제표지와 어울리게 되면 한정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31) a. 학생은 자고 있어.
- b. 학생은 자고 있어.
- c. 아이는 울고 있어.
- d. 아이는 울고 있어

주제격 표지(31a/c)와 대조 표지(31b/d)의 경우에 모두 원형명사구가 한정적으로만 해석된다. 상적 속성에 의해 야기되는 전제와는 다른 종류의 전제가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존재적 전제(existence presupposition)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정적 표현만이 허용되는 비한정성 제약이 나타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존재적 전제가 유발되는 언어적 환경에서 비한정성 제약이 발생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적 전제를 유발하는 더 많은 예들이 발굴되면 한국어 원형명사구가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좀더 체계적으로 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한국어에서 한정성 제약의 경우와는 달리 비한정성 제약은 중화 현상이 뚜렷이 포착되지 않는 듯하다.¹² 다음절에서는

11. 익명의 심사자가 지적하신대로 (30c/d)는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다. 가령 (30d)는 첫째 어떤 아이가 우는 사건을 반복함을, 둘째 어떤 아이가 성가시게 계속하다가 급기야 울기까지 함을, 셋째 예를 들어 어떤 아이의 엄마가 우는 것을 달래어 놓았더니 이제는 아이가 이어서 울고 있음을 뜻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경우에 모두 서로 다른 음운론적 특성이 관찰된다. 대략적으로 기술하면, 고음조에 의한 음운론적 초점이 ‘또’, ‘울어요’, ‘아이가’에 각각 부여된다. 본문의 논의에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경우이다.
12. Kiss(1995)는 특정성 효과-우리의 체계에서는 비한정성 제약에 해당한다-가 중화되는 경우로 관련 논항이 대조적 초점을 받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음은 헝가리어의 예이다.
 - (i) A Wagner-operakat fiatalok ismerik a legjobbban.
 Wagner’s operas-ACC young people know the best
 ‘It is (a non-specific subset of) young people who know Wagner’s operas the best.’

우리의 논의 전개와 무관하여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 문장은 헝가리어에서 특정적 표현만이 허용되는 특정성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Kiss에 따르면, “fiatalok ‘young people’에 대조적 초점이 부여되면 위 예의 영어 풀이에서 보이듯이 비특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대조적 초점이 주어지면 특정성 효과가 중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바르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Kiss가 택하고 있는 Enc(1991)식의 특정성에 대한 정의를 따른다면 대조적 초점이 주어지는 요소는 그 정의상 특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대조는 대조 집합(C(contrast)-set)이 담화 속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대조 집합에 속해 있는 대조의 대상은 특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다음의 한국어의 예를 보자. 우리의 논의 전개와 무관하여 언급은 하지 않지만, 이 문장은 헝가리어에서 특정적 표현만이 허용되는 특정성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Kiss에 따르면, “fiatalok ‘young people’에 대조적 초점이 부여되면 위 예의 영어 풀이에서 보이듯이 비특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대조적 초점이 주어지면 특정성 효과가 중화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옳바르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Kiss가 택하고 있는 Enc(1991)식의 특정성에 대한 정의를 따른다면 대조적 초점이 주어지는 요소는 그 정의상 특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대조는 대조 집합(C(contrast)-set)이 담화 속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대조 집합에 속해 있는 대조의 대상은

지금까지 살펴본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담화표상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5. 담화표상이론을 이용한 설명

이 절에서는 전제를 포괄하기 위하여 담화표상이론을 확대시킨 van der Sandt (1992)의 조응관계로서의 전제이론(Presuppositions-as-Anaphora Theory)에 입각하여 이제껏 논의된 현상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방법이 관련 현상들의 설명에 적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성 제약 및 비한정성 제약은 모두 존재적 전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정성 제약의 환경에서는 존재적 전제를 가지는 표현 즉, 한정적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한정성 제약은 존재적 전제와 부응하기 위하여 한정적 표현만이 허용되는 데에서 비롯된다. 조응관계로서의 전제이론은 전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므로 이러한 존재적 전제의 처리에 유용하다. 둘째, 한정성 제약의 중화는 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문장이 초점에 의해 영향을 받아 양화구조상의 변화를 입게 되어 발생함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한정성 제약의 중화에 관여하는 초점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포착하는 Herburger(2000)의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의 기본적인 취지는 담화표상이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이러한 초점의 영향은 담화표상이론을 확대시킨 조응관계로서의 전제이론에서도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조응관계로서의 전제이론이 앞 절들에서 논의된 사실들을 일관성있게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논의의 편의상 비한정성 제약의 예부터 시작하자. 비한정성 제약이 나타나서 ‘학생’이 한정적으로만 해석되는 (22a)에 대하여 (32)와 같은 담화표상구조(DRS: discourse representation structure)가 주어진다. 우리는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의 취지를 담화표상이론에 반영하고 있는 까닭에 모든 문장은 사건에 대해

특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다음의 한국어의 예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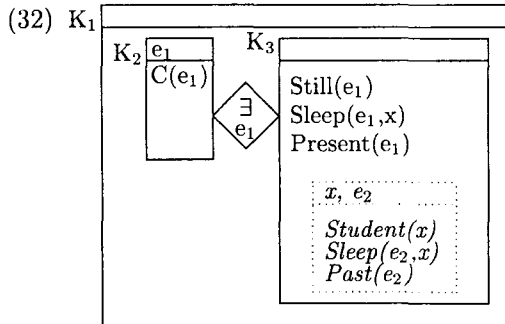
(ii) 한 아이는 아직 울고 있어요.

‘아직’에 의하여 비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환경이지만 (ii)와 같이 대조의 ‘는’이 사용되면 ‘한 아이’가 허용되어서 비한정성 제약의 중화가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인다. 즉, Kiss의 주장에 들어맞는 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한 아이’가 가리키는 아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담화 속으로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되었던 아이들의 어떤 집합에 속하는 아이를 뜻한다. 즉, 이 ‘한 아이’는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이다. 그리고 이 어떤 집합은 대조의 ‘는’에 의해서 확인되는 대조 집합이다. 이렇듯 대조 표지에 의해 ‘한 아이’는 특정적이 되므로 이것의 비특정적인 해석은 가능하지가 않다. 따라서 헝가리어나 한국어에서 모두 Kiss의 주장이 옳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에 의하여 비한정성 제약이 나타나는 환경이지만 (ii)와 같이 대조의 ‘는’이 사용되면 ‘한 아이’가 허용되어서 비한정성 제약의 중화가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인다. 즉, Kiss의 주장에 들어맞는 예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한 아이’가 가리키는 아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담화 속으로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급되었던 아이들의 어떤 집합에 속하는 아이를 뜻한다. 즉, 이 ‘한 아이’는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이다. 그리고 이 어떤 집합은 대조의 ‘는’에 의해서 확인되는 대조 집합이다. 이렇듯 대조 표지에 의해 ‘한 아이’는 특정적이 되므로 이것의 비특정적인 해석은 가능하지가 않다. 따라서 헝가리어나 한국어에서 모두 Kiss의 주장이 옳바르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ii)를 비한정성 제약의 중화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여전히 문제이다. ‘한 아이’가 비특정적 비한정이지 않고 특정적 비한정이라고 하더라도 비한정적이므로 비한정성 제약의 중화로 볼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23b/d)와 관련하여 언급하였듯이,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이 비특정적인 비한정 표현보다 비한정성의 정도가 낮는데, 비한정성의 정도가 낮은 전자가 허용된다고 하여 비한정성 제약이 중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아쉽지만 비한정성 제약의 중화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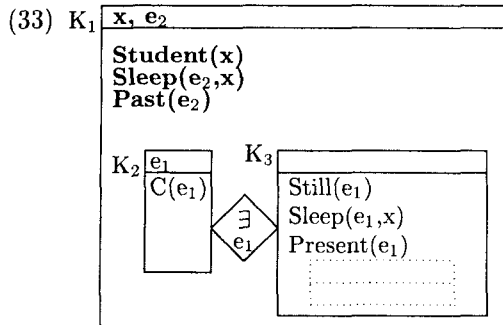
양화된 구조로 파악된다. 따라서 모든 문장들은 아래의 담화표상구조에서처럼 삼부구조(tripartite structure)로 표상된다. 또한 (22a)와 같이 특정한 양화부사가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암묵적인 존재적 양화(\exists)가 부여된다.

(22) a. 학생이 아직 자고 있어.



점선으로 된 칸은 전제적 담화표상구조(presuppositional DRS)라 불리며 이 속에는 전제적 내용이 담기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에 의해 유발되는 전제인 ‘어떤 학생이 발화시점 이전에 자고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음관계로서의 전제이론에서는 전제를 일종의 조음사로 보고 그것의 선행사를 추적한다. 이 과정을 전제 해결(presupposition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전제 해결의 절차가 끝나야 비로소 타당한 담화표상구조를 얻게 된다. 만약에 전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타당한 담화표상구조를 얻지 못하게 되어 해당 문장이 비문으로 처리된다. 전제 해결에는 결속(binding)과 수용(accommodation)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쓰이는데 결속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결속이란 전제적 담화표상구조의 담화표지-여기서는 ‘x’와 ‘e₂’-에 적절한 선행사를 접근가능한(accessible) 담화표상구조-여기서는 K_1, K_2, K_3 -에서 찾아서 관련된 두 담화표상구조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이 예에서는 ‘x’와 ‘e₂’에 적절한 선행사를 모두 보유한 담화표상구조가 없으므로 수용의 절차로 넘어간다. 수용이란 전제적 담화표상구조를 접근가능한 다른 담화표상구조에 단순히 합병시키는 작업인데 가장 높은 담화표상구조부터 차례로 수용을 시도한다. 수용은 상당히 강력한 수단이므로 수용의 결과가 정보적(informative)이고 비모순적(consistent)이어야 한다는 두 제약이 작동한다.¹³ 이 예에서는 가장 높은 담화표상구조인 K_1 에 전제적 담화표상구조가 수용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에서처럼 전제 해결을 통해 처리되어야 하는 조음적 요소는 이탤릭체로, (33)에서처럼 전제 해결을 통해 처리된 요소는 볼드체로 표기하기로 한다.

13. Ψ 를 Φ 에 수용하여 Φ' 를 얻었을 때, Φ' 를 만족하는 모형들의 집합이 Φ 를 만족하는 모형들의 집합의 진부분집합이면 이 수용은 ‘정보적’이다. 또한 Φ' 를 만족하는 모형이 최소한 하나 존재하면 이 수용은 ‘비모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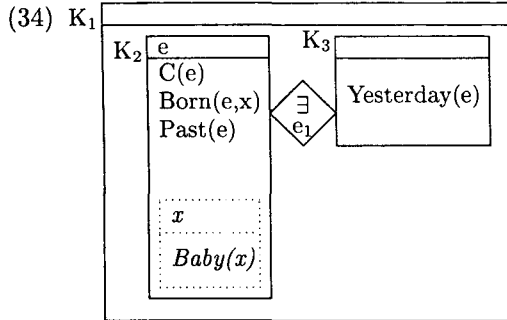
수용이 이루어진 (33)처럼 전제적 담화표상구조가 빈 칸으로 남게 되면 전제가 해결되었음을 뜻하며, 우리는 타당한 담화표상구조를 얻게 된다. 이 담화표상구조에 따르면 ‘x’는 주 담화표상구조(main DRS) K_1 의 담화 범위에 나타나므로 K_3 의 조건인 ‘Sleep(e_1, x)’에 출현하는 ‘x’는 이미 담화 범위 내에 존재하는 담화표지이므로 한정적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22a)의 ‘학생’이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존재적 전제를 야기하여 한정적 표현만을 허용하게 되는 비한정성 제약은 이와 같이 조응관계로서의 전제이론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성 제약의 중화가 일어나는 예를 살펴보자. (9a)에서 한정성 제약 동사 ‘태어났어’는 비한정적인 주어를 요구하나 ‘어제’에 초점이 가해지면 한정적 주어가 허용되고 있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를 이용하여 (19)와 같은 표상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르면 초점의 영향에 의해 한정성 제약 동사 ‘Born(e)’이 제한자로 분할되어 논제를 이룬다. 한정성 제약이 발생하려면 ‘Born(e)’이 작용역으로 분할되어 단언을 형성해야 하는데, (19)처럼 제한자로 분할하여 논제를 형성하므로 한정성 제약은 중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조응관계로서의 전제이론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의 취지가 좀더 체계적으로 드러남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9a)에 대하여 (34)와 같은 초기 담화표상구조(initial DRS)가 가능하다.¹⁴ 이 담화표상구조에는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가 채택하는 양화구조에 나타나는 초점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다: (16) 사건 양화사 Q의 영향권 내에 있는 비초점적 요소들은 모두 Q를 제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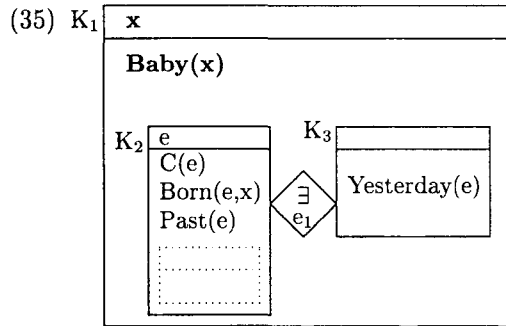
(9) a. 그 아이가 [어제]_F 태어났어.

(19) $[\exists e: C(e) \ \& \ [the \ x: baby(x)] \ Theme(e,x) \ \& \ Born(e) \ \& \ Past(e)]$
 Yesterday(e) $\& \ [the \ x: baby(x)] \ Theme(e,x) \ \& \ Born(e) \ \& \ Past(e)$

14. (19)와 (34) 사이에는 표상 방법의 차이가 있다. (19)는 신 데이비드슨식(Neodavidsonian) 분석을 사용하는 반면에 (34)은 원래의 데이비드슨식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에 있어서 이 차이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담화표상구조의 작성에 편리한 원래의 데이비드슨식 분석을 사용한다.



(19)의 제한자에 나타나는 비초점적 정보가 (34)의 제한자인 K₂에도 나타난다. 그런데 (34)는 전제적 담화표상구조를 이용하여 ‘그 아이’가 야기하는 존재적 전제도 포착한다. 이제 (34)에 대하여 전제 해결의 절차를 밝게 되는데, ‘x’에게 적절한 선행사를 찾을 수 없으므로 결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단계인 수용이 행해진다. 이 경우에 가장 높은 담화표상구조 K₁에서 수용이 이루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다음의 (35)와 같은 타당한 담화표상구조를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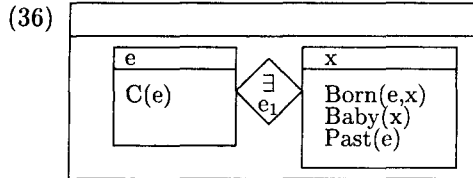


담화표지 ‘x’는 주 담화표상구조에서 도입되므로 K₂의 조건인 ‘Born(e,x)’에서 나타날 때 한정적인 해석을 갖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Born(e,x)’는 제한자에 나타난다. 제한자로의 분할은 논제를, 작용역으로의 분할은 단언을 뜻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Born(e,x)’는 단언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존재의 단언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개체 논항 ‘x’가 새로운 담화표지(new discourse marker)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9a)에서 ‘그 아이’와 같은 한정적인 표현이 허용한다. 한편 이러한 구조에서는 한정성에 대한 아무런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비한정적인 표현도 허용될 것이다: ‘한 아이가 [어제]_F 태어났어’. 이상과 같이 조음관계로서의 전제이론은 한정성 제약의 중화를 처리함에 있어 구조화된 데이비드슨식 해체의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음관계로서의 전제이론은 한정성 제약 현상 그 자체의 설명에도 유용하다. (7a)은 한정성 제약 동사의 영향으로 원형명사구 ‘아이’가 비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이 문장에는 어떠한 음운론적 초점도 부여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경우는 문장 전체가 초점을 받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맥락적

정보인 'C(e)' 이외의 모든 정보가 작용역에 할당되어 (36)과 같은 담화표상구조를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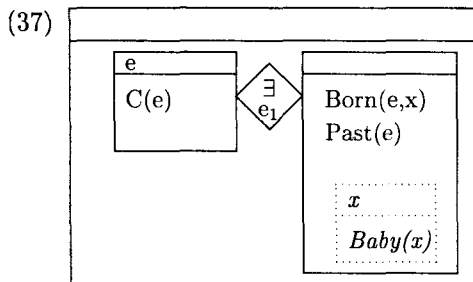
(7) a'. 아이가 태어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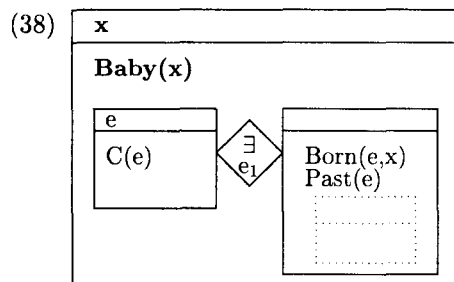
'아이'에 의해 존재적 전제가 야기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전제적 담화표상구조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Born(e,x)'가 작용역에 나타나서 단언의 대상이 되므로 한정성 제약이 발동하여 이것의 개체 논항 'x'가 새로운 담화표지이기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데 표지 'x'가 'Born(e,x)'가 속한 담화표상구조에서 담화 범위에 도입되므로 이 요구를 만족시켜 (36)의 담화표상구조는 타당한 것이 된다. 이렇듯 (7a')의 '아이'는 비한정적 해석만을 받음을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정성 제약을 여기는 예를 살펴보자. (7a'')에 대해서는 (37)와 같은 초기 담화표상구조가 주어진다.

(7) a''. #그 아이가 태어났어.



(36)과 다른 점은 지시사 '그'로 인해서 전제적 담화표상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37)이 전제 해결의 과정을 거치면 (38)과 같이 된다.



그런데 이 담화표상구조는 작용역에 나타나는 한정성 제약 동사 'Born(e,x)'의 요구를 거스른다. 즉, 'x'가 주 담화표상구조에서 도입되므로 'Born(e,x)'의 'x'는 구 담화표지(old discourse marker)가 되어 새로운 담화표지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비문으로 처리된다. 이와 같이 (7a'/a'')에 나타나는 한정성 제약의 현상도 조음관계로서의 전제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하여 우리는 전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담화표상이론을 확대한 조음관계로서의 전제이론이 한정성 제약, 비한정성 제약, 그리고 한정성 제약의 중화를 적절하게 설명함을 살펴보았다.

6. 맺음말

한정성 효과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가 한정성 제약만을 다룸으로써 마치 한정성 효과와 한정성 제약이 동의어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한정성 제약뿐만 아니라 비한정성 제약의 현상이 자연언어에 엄연히 존재함을 한국어의 예들을 통하여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한정성 효과는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을 통칭하는 용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한국어에서 한정성 제약은 존재문, 서술명사구, 비분리성 소유구문, 그리고 [(CAUSE TO) COME TO) EXIST] 등의 의미자질을 가지는 동사들에 의해서 발생하고, 비한정성 제약은 존재적 전제를 동반하는 상부사, 상동사, 반복 부사, 그리고 화제표지 등에 의해서 발생함을 살펴보았다. 한편 한정성 제약의 중화 현상이 뚜렷이 관찰되었고, 여기에는 초점의 영향이 절대적임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정성 제약, 비한정성 제약, 한정성 제약의 중화 등의 제 현상들이 조음관계로서의 전제이론에 의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한국어와 같이 관사가 결여되어 있어서 한정성에 대한 명시적인 표지가 결여된 언어들에서도 한정성에 대한 정보가 화자와 청자 간에 분명히 공유되어야 한다면, 이러한 언어들에는 한정성 및 비한정성 제약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약들의 환경들에 의하여 한정성에 대한 정보가 간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어의 원형명사구의 한정성이 이 제약들을 일으키는 환경들에 의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원형명사구의 한정성의 연구는 한정성 제약과 비한정성 제약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연구에 의해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한편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비한정성 제약의 중화에 대한 논의도 한국어 원형명사구의 한정성의 연구에 중요하리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이 조만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문귀선. 2000. The Predication Operation and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in Korean: Focusing on Inalienable Possessive Construction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0-1: 239-263.
- 전영철. 1998. Aspectual Adverbs and Donkey Anaphora.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23: 165-188.
- 전영철. 2000. Existential Construction in Korean. *Journal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27: 261-280.
- 전영철. 2001. (In)definiteness Restriction in Korean Bare NPs.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9: 423-432.
- Abbott, B. 1993. A Pragmatic Account of the Definiteness Effect in Existential Sentences. *Journal of Pragmatics* 19: 39-55.

- Barwise, J. and R. Cooper. 1981. Generalized Quantifiers and Natural Language. *Linguistics and Philosophy* 4.
- Enc, M. 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1: 1-25.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Herburger, E. 2000. *What Counts Focus and Quantification*.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36. MIT Press.
- Kamp, H. 1981.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in J. Groenendijk et al., 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Amsterdam: Mathematical Center.
- Kamp, H. and U.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Dordrecht: Kluwer.
- Kiss, K. 1995. Definiteness Effect Revisited. In Kenesei ed., *Levels and Structures (Approaches to Hungarian, Vol. 5)*: 64-88. JATE.
- Reuland, E. and A. ter Meulen. eds. 1987. *The Representation of (In)definiteness*. MIT Press.
- Szabolcsi, A. 1986. From the Definiteness Effect to Lexical Integrity. In W. Abraham and S. de Meij eds., *Topic, Focus, and Configurationality*: 321-348. John Benjamins.
- ter Meulen, A. and H. Smessaert. 1994. Aspectual Focus in English and Dutch, In P. Bosch and R. van der Sandt, eds., *Focus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 2: 353-362.
- van der Sandt, R. A.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s Anaphora Resolution. *Journal of Semantics* 9: 333-377.

접수일자: 2002년 11월 14일

게재결정: 2002년 12월 10일